python study

2017.1.10 이영득

7장. 협력

- 49. 모든 함수, 클래스, 모듈에 docstring 을 작성하자
- 50. 모듈을 구성하고 안정적인 API를 제공하려면 패키지를 사용하자
- 51. 루트 Exception 을 정의해서 API로부터 호출자를 보호하자
- 52. 순환 의존성을 없애는 방법을 알자
- 53. 의존성을 분리하고 재현하려면 가상 환경을 사용하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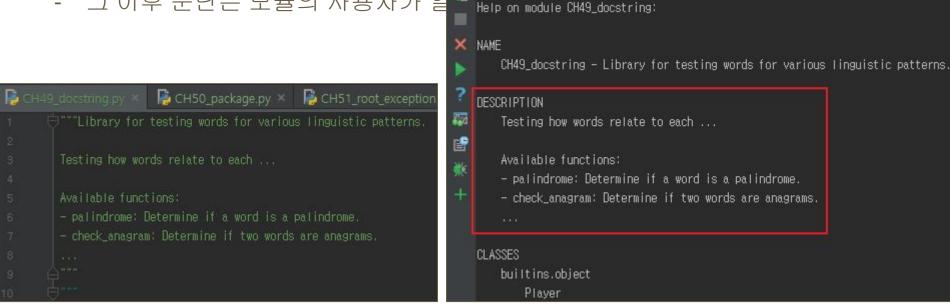
모든 함수, 클래스, 모듈에 docstring 을 작성하자.

docstring 을 작성하는 이유?

- 대화식 개발이 편해진다. (repr, help function) 외부에서 설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.
- 소스코드에 적은 내용을 외부에서 바로 꺼낼 수 있기 때문에,
 문서 생성 도구의 활용의 폭이 커진다.
- 코더 입장에서 문서가 더 잘 정리 되도록 장려한다.
- PEP-0257 을 보면 이미 잘 정리되어 있는 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.

문서 작성 컨벤션 (모듈)

- 큰따옴표 세 개를 사용한다 (""")
- 첫 번째 줄은 모듈의 목적을 기술한 Python Console
- 그 이후 문단은 모듈의 사용자가 일



help("CH49_docstring")

문서 작성 컨벤션 (클래스)

- 모듈과 대동소이 하다. 클래스 선언 바로 아래에 docstring 을 적는다.

```
class Player(object):

"""Represents a player of the game.

Subclasses may override the 'tick' method to provide ...

Public attributes:

- power: Unused power-ups (float between 0 and 1)

- coins: ...(integer)

"""

def __init__(self):

self.power = 0.0

self.coins = 1
```

```
Help on class Player in module main :
class Player(builtins.object)
    Represents a player of the game.
    Subclasses may override the 'tick' method to provide ...
    Public attributes:
    - power: Unused power-ups (float between 0 and 1)
    - coins: ...(integer)
    Methods defined here:
    __init__(self)
```

문서 작성 컨벤션 (함수)

- 마찬가지로 비슷하다. 필요하다면 args, returns, exceptions 등을 기술한다.

```
72 def find_anagrams(word, dictionary):
73 """Find all anagrams for a word.
74
75 This function only runs as fast as the test for ...
76
77 Args:
78 word: String of the target word.
79 dictionary: Container with all strings that ...
80
81 Returns:
82 List of anagrams that were found. ...
83
84 return word
```

```
Help on function find_anagrams in module __main__:

find_anagrams(word, dictionary)help(find_anagrams)

Find all anagrams for a word.

This function only runs as fast as the test for ...

Args:

word: String of the target word.

dictionary: Container with all strings that ...

Returns:

List of anagrams that were found. ...
```

핵심 정리

- 모든 모듈, 클래스 함수를 docstring으로 문서화하자. 코드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관련 문서도 업데이트하자.
- 모듈: 모듈의 내용과 모든 사용자가 알아둬야 할 중요한 클래스와 함수를 설명한다.
- 클래스: class 문 다음의 docstring에서 클래스의 동작, 중요한 속성, 서브클래스의 동작을 설명한다.
- 함수와 메서드: def 문 다음의 docstring에서 모든 인수, 반환 값, 일어나는 예외, 다른 동작들을 문서화한다.

모듈을 구성하고 안정적인 API를 제공하려면 패키지를 사용하자.

Package?

패키지란? 다른 모듈을 포함하는 모듈을 총칭.

대부분은 디렉터리 안에 __init__.py라는 빈 파일을 넣는 방법으로 패키지를 정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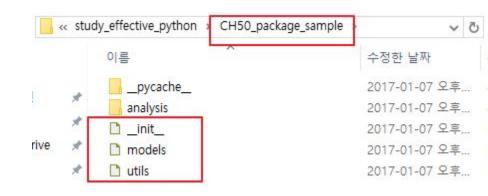
패키지를 활용해서 얻는 이점

- 네임스페이스의 역할을 한다.
- 안정적인 API를 제공할 수 있다. (원하는 부분만 import로 보낼 수 있다.)

패키지 기본 사용법

패키지를 만드는 방법

Main.py
 CH50_package_sample/__init__.py
 CH50_package_sample/models.py
 CH50_package_sample/utils.py



사용자가 import 하는 방법

from CH50_package_sample import utils as new_name (from Directory import module_name as new_name으로 생각하면 편하다)

네임스페이스 충돌 케이스

동일한 함수/클래스가 A 모듈과 B 모듈 모두에 있을 때,

이 경우 as 절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.

```
from CH50_package_sample import utils as root
from CH50_package_sample.analysis import utils as analysis

print(root.util_func_a())
print(analysis.util_func_a())
```

(혹은 전체 import 한 후, 사용할 때마다 풀네임을 적을 수도 있다.)

모듈 전체가 아닌 일부만 사용이 가능하게 허용하기

all 속성을 이용한다. itils.py models.py × __all__ = [] from . models import Projectile from . models import * __all__ += models. __all__ = [Projectile] __all__ = [simulate_collision] from . utils import * __all__ += utils.__all__ class Projectile(object): def _dot_product(a, b): def __init__(self, mass, velocity): return 2 self.mass = mass self.velocity = velocity def simulate_collision(a, b): return 3 def models_func_a(): from CH50_package_sample import + return 0 a = Projectile(1.5, 3)b = Projectile(4, 1.7)def util_func_a(): result = simulate_collision(a, b) return 0

핵심 정리

- 파이썬의 패키지는 다른 모듈을 포함하는 모듈이다. 패키지를 이용하면 모듈 이름으로 코드를 분리하고, 충돌하지 않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.
- 간단한 패키지는 다른 소스 파일을 포함하는 디렉터리에 __init__.py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정의한다.
- _all_ 이라는 속성에 공개하려는 이름을 나열하여 모듈의 명시적인 API를 제공할 수 있다.
- 공개할 이름만 패키지의 __init__.py 파일에서 임포트하거나 내부 전용 멤버의 이름을 밑줄로 시작하게 만들면 패키지의 내부 구현을 숨길 수 있다.
- 주의: 사용처에서 from x import * 식의 모든 코드를 임포트하는 것은 자제하자.
 - 다른 사람이 참조를 추적하기 어렵다
 - 만일 이름이 곂치게 되면, 나중에 임포트 된 모듈의 내용으로 덮어 써버린다.

루트 Exception을 정의해서 API로부터 호출자를 보호하자.

예외 재정의의 필요성

- 루트 예외가 있으면 호출자가 API를 사용할 때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. (호출자가 별도의 분기로 처리할 수 있다.)
- API 모듈의 코드 버그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.
 (의도하지 않은 예외는 API 코드에 있는 버그라고 본다.)
- 시간이 지나 특정 환경에서 더 구체적인 예외를 제공하여 API를 확장할 수 있다.

사용 예제

사용법은 C#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.

```
# Exception 을 상속받은 커스텀 클래스는 사용자가 try/catch 에서 잡아낼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ry:
        class Error(Exception):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eight = my_module.determine_weight(1, -1)
              ""Base-class for all exceptions raised by this module."""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cept NegativeDensitvError as e: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aise ValueError('Must supply non-negative density') from e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cept InvalidDensitvError:
        class InvalidDensityError(Error):
28 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eight = 0
             """There was a problem with a provided density value."""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cept Error as e: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ogging.error('Bug in the calling code: %s', e)
        # 여기서 새로운 예외가 추가되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cept Exception as e:
        class NegativeDensityError(InvalidDensityError):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ogging.error('Bug in the API code: %s', e)
            """A provided density value was negative."""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aise
```

핵심 정리

- 작성 중인 모듈에 루트 예외를 정의하면 API로부터 API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.
- 루트 예외를 잡으면 API를 사용하는 코드에 숨은 버그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.
- 파이썬 Exception 기반 클래스를 잡으면 API 구현에 있는 버그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.
- 중간 루트 예외를 이용하면 API를 사용하는 코드에
 영향을 주지 않고 나중에 더 구체적인 예외를 추가할 수 있다.

순환 의존성을 없애는 방법을 알자

순환 의존성의 대표적인 예

```
# app.py

import dialog

class Prefs(object):

def get(self, name):

pass

prefs = Prefs()

dialog.show()

# dialog.py

class Dialog(object):

def __init__(self, save_dir):

self.save_dir = save_dir

save_dialog = Dialog(app.prefs.get('save_dir'))

AttributeError: module 'app' has no attribute 'prefs'
```

Import가 실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?

- 1. sys.path에 들어있는 위치에서 모듈을 검색한다.
- 2. 모듈에서 코드를 로드하고 코드가 컴파일되게 한다.
- 3. 대응하는 빈 모듈 객체를 생성한다.
- 4. 모듈을 sys.modules에 삽입한다.
- 5. 모듈 객체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여 모듈의 내용을 정의한다.

위의 케이스에서 상황은?

- app 모듈은 4번 단계를 실행하면서, dialog 모듈을 임포트 했다.
- dialog 모듈이 app 모듈을 참조했을 땐, 아직 prefs가 정의되지(5번 단계)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.

순환 의존성을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(1)

임포트 재정렬

: 위 케이스에서 app.py 안에 import dialog를 나중에 호출하는 방법. 하지만 PEP 8 스타일 위반이다. 별로 바람직 하지 않음.

```
# app

class Prefs(object):

def get(self, name):

pass

prefs = Prefs()

import dialog # Moved

dialog.show()
```

순환 의존성을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(2)

임포트, 설정, 실행

: 임포트 하는 시점에 실제 함수를 실행하지 않는 방법이다. 즉 prefs를 사용하는

시점을 dialog가 임포트 되는 시점이 아닌 사용자의 직접 호출을 받을 때,

호출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.

(호출부도 변경되어야 함)

```
# main

mport app

minport dialog

mport dia
```

```
import app
class Dialog(object):
   def __init__(self):
       pass
save_dialog = Dialog()
def show():
   print( Showing the dialog! )
def configure():
    save_dialog.save_dir = app.prefs.get('save_dir')
```

순환 의존성을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(3)

동적 임포트

: import 문을 함수나 메서드에서 사용하는 방법. 코드 변경이 적으나, 단점도 있다. Import 문의 비용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다. 또, SyntaxError 예외가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한 후에 알 수 있다.

```
class Dialog(object):

def __init__(self):

pass

# Using this instead will break things

# save_dialog = Dialog(app.prefs.get('save_dir'))

save_dialog = Dialog()

def show():

import app # Dynamic import

save_dialog.save_dir = app.prefs.get('save_dir')

print('Showing the dialog!')
```

핵심 정리

- 순환 의존성은 두 모듈이 임포트 시점에 서로 호출할 때 일어난다.
 이런 의존성은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동작을 멈추는 원인이 된다.
- 순환 의존성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환 의존성을
 의존성 트리의 아래에 있는 분리된 모듈로 리팩토링하는 것이다.
- 동적 임포트는 리팩토링과 복잡도를 최소화해서 모듈 간의 순환 의존성을 없애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다.(지불하는 비용도 있다.)

의존성을 분리하고 재현하려면 가상 환경을 사용하자

모듈 의존성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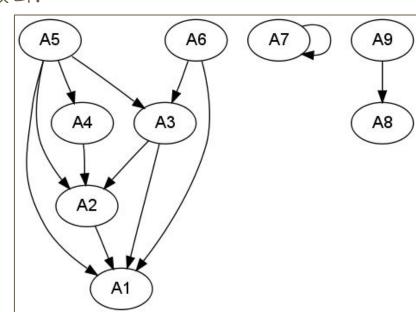
실제 코드를 개발하다 보면, 혹은 오픈소스를 연결하다 보면..

각 lib들의 requirements 가 동일하게 겹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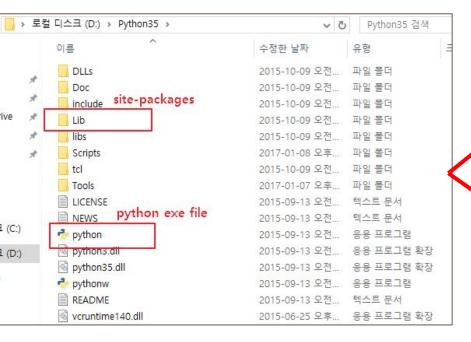
게다가 각 lib들은 호환 버전이 따로 있는 경우도 많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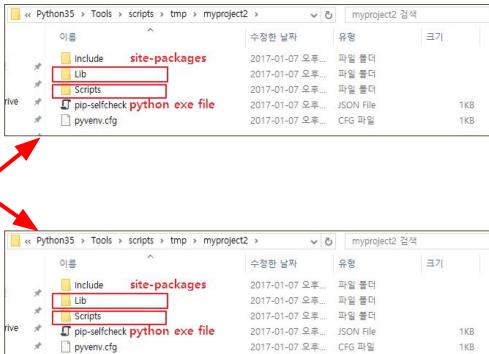
예> A2 경우 같은 것..

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버전을 clone 시켜서 별도의 repository를 갖게 해주는 것이 Pyvenv라는 툴이다.



Concept of pyvenv





편한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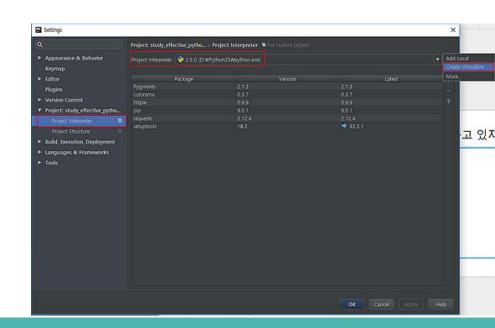
- 책에선 cmd(or shell) 환경에서 설명하고 있지만... (cmd로 짧은 시연하기)

- 그런데 굳이 cmd 창에서 할 필요가 없다

왜냐? 파이참이 다 지원하니까.

그것도 GUI로.

이것도 직접 보여 dream.



이건 내 생각

로컬에서 여러 버전을 사용하려면 확실히 pyvenv가 편하다.

근데 아예 docker로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. (특히 서버 플머)

어차피 무엇을 하건 내 로컬에서만 돌리려는 목적이 아니라면, Docker로 묶어 주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도 매우 편하다. Pyvenv는 어쨌든 로컬에서 파일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, Cmd나 수동으로 관리한다면 귀찮은 타이핑을 많이 해야할 것 같다.

핵심 정리

- 가상 환경은 pip를 사용하여 같은 머신에서 같은 패키지의 여러 버전을 충돌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해준다.
- 가상 환경은 pyvenv로 생성하며, source bin/activate로 활성화하고 deactivate로 비활성화 한다.(리눅스 얘기, 윈도우는 batch 파일 실행)
- Pip freeze로 환경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을 덤프할 수 있다. Requirements.txt 파일을 pip install -r 명령의 인수로 전달하여 환경을 재현할 수 있다.
- 파이썬 3.4 이전 버전에서는 pyvenv 도구를 별도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야 한다. 명령줄 도구의 이름은 pyvenv가 아닌 virtualenv다.